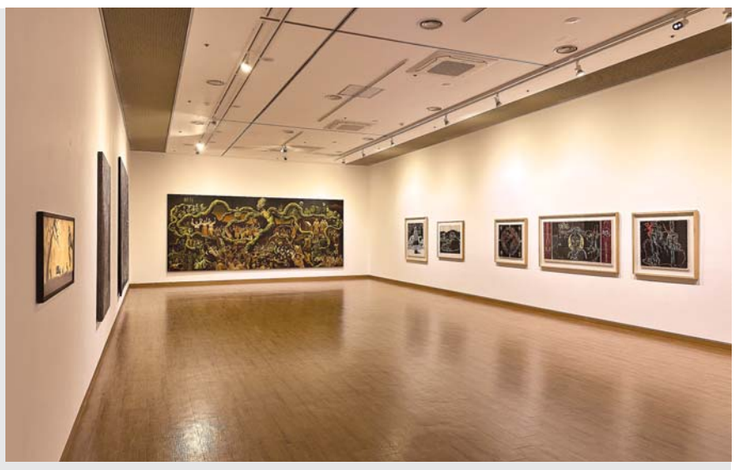
30년을 관통하는 '4·3미술'을 마주하다

올해 30회째 맞은 4·3미술제
오늘 '기억의 파수'전으로 시작
4월엔 국제 콘퍼런스도 예정돼



7일부터 제주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기억의 파수'전. 탐라미술인협회 제공

올해 30회째를 맞은 4·3미술제가 보다 풍성해졌다. 전시 장소와 기간이 확대됐고, 4·3미술의 위상 정립 및 4·3예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제 콘퍼런스도 처음 열릴 예정이다.

탐라미술인협회 주최, 4·3미술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 '4·3미술제'는 제의적 성격의 전시로 시작해 기억투쟁이라는 예술운동의 성격으로 확장된 4·3미술제의 30년을 관통하는 역사를 조명한다. 그리고 세계 곳곳의 예술인과의 연대를 확대하고, 4·3미술의 위상 정립에 나선다.

올해 '4·3미술제'는 7일부터 제주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기억의 파수'전으로 문을 연다. 4월엔 산지천갤러리와 예술공간이아, 포지션민에서 또 하나의 전시 '경계의 호위'가 2개의 파트로 나뉘어 한달간 열릴 예정이며, 이 기간 전문해설사와 참여 작가와 함께하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5월부터 1년간 공식웹사이트에선 온라인 전시도 이어진다.

4·3미술 국제 콘퍼런스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예정돼 있다. 4·3과 4·3미술을 주목하는 국내·외 미술계 관계자 및 학자, 작가들이 참여할 예정인 국제 콘퍼런스는 첫날 학술콘퍼런스에 이어 둘째 날은 전시 투어, 마지막 날은 주요 유적지 방문 일정으로 구성됐다.

4·3미술조직위와 제주현대미술관 공동주관으로 30회째를 이어온 4·3미술제의 역사를 기념하는 전시로 마련된 '기억의 파수'전엔 그동안 4·3미술제에 참여한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기억, 저항, 공동체를 키워드로 재구성한 전시는 '먼저 꾸었던 꿈', '봉인된 섬', '다시 맞은 봄' 섹션으로 나눠 회화, 판화, 조각, 사진, 영상매체를 아우르는 48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오는 5월 21일까지 현대미술관 본관에서 마주할 수 있다.

또 4월 1일부턴 현대미술관 본관 건너편에 위치한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영상관에서 미디어아트 전시 '기억의 파수'가 진행된다. 제주 4·3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창작된 수많은 미술작품을 새로운 감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오은지기자

탐라역사문화권 체계적 정비 추진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최근 시행계획 용역 입찰공고

제주도가 탐라역사문화권의 체계적 정비·육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최근 '탐라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탐라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역사문화권 정비 5개년 기본계획'에 수립돼 있는 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비구역의 지정과 사업 실행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문화, 환경, 토지 이용, 도시 기반시설, 관광 연계 방안 등을 수립해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및 정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

과업지시서엔 정비시행계획의 목차(안)으로 정비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등을 담은 개요부터 기초조사(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요소, 육성과 연계할 요소 등), 현황 진단, 기본 구상(비전 및 목표), 세부사업계획(제주 특성을 반영한 세부사업계획, 탐라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 정비구역 관리계획(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원칙, 관리방향,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등), 재원조달계획 및 실행계획 등이 제시됐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며, 사업예산은 2억원이다.

오은지기자

달라진 제주한란전시관, 즐길거리 가득

올해부터 연중 상시 행사 진행
매주 토·일 다양한 체험 행사
매월 전시도… 이달엔 춘란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한란전시관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연중 상시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매주 토·일요일 한란전시관을 찾는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난 관련 전시를 비롯해 배양, 현미경 관찰 등 자연과학 실습과 난초 드로잉 등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이 월별로 진행된다. 또 3~6월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특별체험 등 기획 이벤트도 준비됐다.

올해 첫 전시는 춘란전시회가 연다. 이달 11일과 12일 단 이틀간 자생난경영회 제주지부(회장 이태훈)와 함께 회원 등 애란인이 일년 동안 키워온 춘란 9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이어 4월에는 새우란, 5월엔 반려식물, 6월엔 수국, 7월엔 석부작 전시회가 예정돼 있다.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은 "올해 한란전시관은 매주 주말마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민과 관광객이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전시관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험프로그램 신청은 제주한란전시관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황학주의 시詩 읽는 화요일 (9)

고기국숫집에서

김광렬

세 부자가 고기국숫집에 깃들었다
아비는 늙은 노새를 닮았다
어디서든 권위가 안 설 것 같은,
머리털이 몽당빗자루 같은,
밑바닥 세월 견뎌가는 듯한,
왜소한 아비와 함께 온 두 남매가
쑥부쟁이처럼 고왔다
아비가 자식들의 그릇에
말없이 돼지고기 한 점씩 얹어주었다
나는 소싯적 찌든 아비를
얼마나 부끄러워했는가
가슴에 아리게 면도날이 서는데
서럽긴 해도
저들은 덜 아프겠다

삽화=써머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핍진하게 그리는 이 시의 장점은 시인의 심안(心眼)에 있다. 말하자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을 향해 던지는 시선의 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기국숫집에서 고기국수 먹는 세 부자의 풍경은 생활의 소소한 무늬이지만 시의 영역 안에 붙잡히고, 가난을 앓은 사람들의 세계와 의미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동시대 "세 부자"의 왜소한 아비와 "소싯적 찌든 아비"와 그리고 화자는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것은 누군가 내게 베푼 사랑의 흔적을 상징하는 고기국수이다.

그리하여 세 부자가 고기국숫집에 "깃"들고, "어디서든 권위가 안 설 것 같은" 아버지의 행위는 돼지고기 한 점에 얹히는 가장 따뜻한 언어가 된다. 그때 나이 어린 희망은 연보라색 쑥부쟁이처럼 곱다. 그리고 이런 풍경의 어느 깊은 자락에서 호출된 부끄러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또 비어 있는 '어미'의 자리에 대해 물을 수 있는 시간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인>